

구소련 지역 고려인 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구조적 특징*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hwangys00@hanmail.net)



국문요약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150년 이상의 긴 역사만큼이나 내부의 구성 요소 및 성격이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복잡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권역별로 나누어진 인식과 개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우선 개념적 차원에서 고려인 문제를 분석할 때는 '러시아/CIS' 개념보다는 '구소련' 개념의 사용을 제의한다. 비CIS 지역인 발트 삼국에 소수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뿌리가 바로 일반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고려인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루지아(조지아)는 CIS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지역인 극동 러시아 권역의 경우 150년의 역사를 가진 진정한 대륙의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그리고 북한 출신의 소련 국적자와 1990년대 이후 진출이 가능했던 한국인 및 인근의 조선족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까지 혼재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구성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럽 러시아 지방에서 남부 지역은 새로운 고려인 공동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려인의 인구유입이 많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등지의 고려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다. 우선 고려인들은 언어적

* 이 글은 재외동포 전문가 포럼(재외동포재단 주최, 2016.6.3)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구성되었다.

으로 러시아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주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고려인 인구도 점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사할린 출신 한인들도 활동 중에 있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강제이주'보다 '정주'의 개념을 가장 먼저 내세울 정도로 이미 안정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 경제의 위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도 국회의원이나 재계 실력자들도 등장한 만큼 위상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맞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는 우선 고려인들의 정확한 규모 등 그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려인 공동체가 거의 붕괴된 타지키스탄의 경우 민족정체성 유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공동체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발트 삼국과 몰도바 그리고 카프카즈 삼국의 고려인 사회는 소멸 위기가 높은 고려인 희소지역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관심으로 진출한 한국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제어 : 고려사람, 고려인, 고려인 강제이주, 소수 민족, 이주, 러시아, 중앙아시아

I. 서론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150년 이상의 한인이주사에서 가장 긴 전통을 가지고 있다. 공식 차원에서 1864년의 당시 제정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이주 공동체를 건설한 한인들은 이후 한인 독립운동에 기여했고, 일부는 20세기가 되기도 전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한 바 있다. 1917년의 러시아혁명으로 인하여 한인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야 했고, 소련 극동 지역에 거주하던 약 172,000여 명의 한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주로 대륙에 거주하던 소련 한인들과는 달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사할린에 이주한 이후 그곳에 잔류하게 된 한인, 즉 사할린 한인들도 소련 정부의 관할 하에 있었기 때문에 소련 한인으로서 통상 간주된다. 그러나 이들간 역사적 맥락은 크게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대개 대륙에서 정착하게 된 한인들은 스스로 '고려사람' 또는 '고려인'으로 부르게 되는데 이 개념 속에는 사할린 한인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다.

소련 시기와 소련 붕괴 이후의 시기를 통하여 사할린 한인들은 대륙으로 이주해 나갔고

이 과정에서 이들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사할린 한인이지만 이미 대륙의 고려인으로 된 사람들도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즉 고려인이 사할린 한인으로 이주해간 경우는 직무상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극히 드물다. 그리고 적어도 이들 소련 한인(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남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상호 간에 무지와 오해로 상대방을 인식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어 1990년의 한소수교와 이듬해의 알마티 한국교육원 설립으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이 지역에 대한 호기심이 하나, 둘씩 해소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위 ‘고려인’ 문제가 일부 알려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중앙아시아 거주 일부 고려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로 재이주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이 한국의 언론과 NGO들에게 포착되었다. 미지의 영역이던 이 문제는 ‘까레이스키’라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부분의 문제를 마치 전체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즉 고려인들에 대해 “가난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동포”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려인들이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연해주와 사할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끔 했다. 나아가 한국의 일부 NGO들이 소련붕괴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민족주의의 희생양이 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이전의 역사적인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의 극동으로 귀환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소련 고려인 사회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소련이 와해되고 15개 독립국가로 바뀌게 되자 고려인 공동체는 당장에 국가를 달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적으로 유사한 환경에 소속된 러시아연방의 한인(고려인과 사할린 한인)들은 그나마 충격을 덜 받았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을 비롯한 비러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의 경우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재적응해야하는 과제가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 중 일부가 열악해진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극동 러시아 지방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현상도 발생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 하나의 국민으로 지냈던 가족과 이웃, 친지는 제각각 다른 국적을 가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접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갑작스럽게 이산가족으로 된 것이다.

러시아 남부나 우크라이나 남부 농촌 지역으로 자유롭게 다니던 우즈베크 고려인들 중 일부는 소련 해체로 인하여 새로운 국적 문제에 부딪쳐 곤란을 겪기도 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독립 직후에 벌어졌던 내전으로 인하여 고려인 사회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 1990년대 10여년은 소련 고려인 공동체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 시기임에 분명하다. 또한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새로운 한인(한국인) 공동체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구소련의 15개국에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한국인들은 소위 고려인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동포의 존재는 인식했지만 소통 수단인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여 원활한 만남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미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과 한국인 공동체 간의 갈등과 오해가 싹트기 시작했다.

한국인 공동체에 대한 실태는 작은 규모와 쉬운 접근 가능성을 볼 때, 이미 주재국 한국 대사관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려인 공동체에 관한 실태 파악은 늘 현재진행형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최근의 10여년 기간은 러시아를 비롯한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과 사회변동 속에서 새로운 국가별 상황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경제발전이 일정 정도 달성한 국가에서 거주하는 고려인과 그렇지 못한 국가에서 극소수의 민족으로 생활하는 고려인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국가의 고려인 공동체는 미약한 규모로 인하여 향후 존재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다. 즉 이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국가마다의 차별적 양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에 유의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구소련 지역 고려인 사회의 특징을 분석하여 가급적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현재적 시점에서 본 고려인 사회에 대한 몇 가지 인식 조건에 대해 고찰하고, III장에서는 해당 국가들을 일정한 권역별로 나뉘어 개별적으로 분석할 것이며, IV장에서 결국 국가별 고려인 사회의 특수성이 반영된 대책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현재적 시점에서 본 고려인 사회에 대한 몇 가지 인식

1. 지역 및 국가별 제도와 특징의 반영 - 용어의 정립

동 지역의 한민족 구성은 이른바 ‘고려인(고려사람)’, 사할린 한인, 남한 사람, 북한 사람 그리고 조선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두 제각각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특징이 있으며 그 결과 전체적인 집단의 동질성보다는 특수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진 개념인 고려인은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¹⁾ 고려인은 특히 앞의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 사전) ‘고려인’의 정의에 관한 항목 참고.

두 번째 사할린 한인의 존재와 함께 통칭 고려인으로 묘사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복잡한 개념적 차이를 뛰어 넘어 일반적 수준에서 고려인을 혼용된 것으로 보되, 서술 필요상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구분해서 표기도 할 것이다. 사실 이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개념 구분이 필요하다.

가령 ‘고려인 강제이주 문제’에 관한 인터뷰 대상자를 설정한다고 할 때, 대륙 거주 사할린 한인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리고 대륙에는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대륙에는 북한 출신들도 소수 그룹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가령 카자흐스탄 고려인으로 알려진 극작가 한대용(한진), 한때 고려일보 주필이던 양원식 선생 등은 사실 1958년에 모스크바에 유학 중 소련에 망명한 북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강제이주의 경험이나 실상에 대해 간접적 지식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90년대 후반에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각종 고려인 단체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려인협회’ 명칭이 붙은 것은 대륙의 고려인들이 조직한 것이고, ‘민족문화자치회’ 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주로 사할린 출신 한인들이 조직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두 집단이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현재는 두 단체가 형식적이거나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형성 과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볼 때 양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고려인에 관한 정확한 개념 이해는 적어도 이에 대해 연구하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 하나 우리에게 ‘러시아/CIS’ 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고려인 문제’에 관한 한 ‘구소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고려인 연구를 할 때 고려인의 역사적 형성과정 이 동일한 발트 삼국에(그리고 최근 그루지아 등) 2~300명 수준의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고려인 집단이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러한 표현의 정당성이 존재한다. 소련의 소멸로 종전의 소련 고려인(또는 소비에트 고려인)은 러시아 고려인, 카자흐스탄 고려인 ... 등으로 국가명칭의 수식어가 동반되어야 하지만, 이들을 통칭 언급할 때는 ‘구소련 고려인’으로 칭해야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글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사용할 것이다.²⁾

이와 같이 이 지역의 고려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용어의 정립문제가 선결 조건인데 보시다시피 매우 복잡하다. 이 혼란은 가령 대륙의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정서적 특징에 관한 이해없이 이들을 공통적으로 묶어 이해할 때의 적절성과 관련이 된다. 이

2) 일부 ‘유라시아 고려인’이라는 용어도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중국을 제외한 유라시아 개념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문적인 범주가 아닌 일반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라시아 고려인’ 개념도 일리가 있다. 김호준 (2013) 참고.

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자들은 거의 다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비전문가들에게는 복잡하게 보인다. 무엇보다 그 둘의 존재는 공통적 측면보다 이질적 측면이 더 강하게 작동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

2. 그들은 누구인가?

최장의 이주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와 최고로 짧은 만남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모른다. 한국 언론이 주로 다루었던 고려인 문제의 결과, 고려인은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동포’ 정도로 인식되고 말았다. 2016년 5월 9일에 개최되었던 제17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올해의 중점 지원 전략으로 “러시아·CIS지역의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대상 법률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다.”⁴⁾ 라고 전해졌다. 이 말 뜻은 결국 바로 직전에 언급된 ‘고려인은 가난하고 힘들고 못사는 동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등 성공한 고려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매우 불쾌하고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표현은 고려인의 전반적인 특징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며, 당장에 해결해야 하는 우선성 높은 현안에 속하는 개념도 아니다. 고려인들은 이미 소위 ‘주류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정치인, 기업가, 학자, 과학자, 기술자, 교사, 변호사, 의사 등 다수 존재한다.⁵⁾ 단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결과로 우리가 모를 뿐이다.

언론에서는 항상 이들 안정된 고려인보다는 가난한 고려인들이 주로 기사의 대상으로 간주될지는 모르나, 그렇다고 그러한 보도가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극히 부분적 속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기반이 취약한 동포가 어디 고려인만 있는 것인가? 조선족도 있고 재일동포, 재미동포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심지어 본국인 한국에도 있지 않는가? 고려인의 어려움만 부각되는 일은 결국 사실을

3)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출간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임영상 외(2005).

4) 출처: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05> (검색일: 2016. 5. 15.).

5) 러시아 고려인 기업가의 경우 2013년 연합뉴스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은행가이자 포브스 억만장자에 포함되어 있는 김 이고리(50)와 전자결제시스템 키워(Qiwi) 사장 김 보리스(53), 산업용 펌프설비 생산업체 기드롬쉬세르비스(Гидромашсервис)의 이사회 의장 최 게르만 등이 대표적이다(연합뉴스 2013/12/26).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제1의 부자이고 포브스 억만장자에 속했던 김 블라디미르(56) 등은 고려인 최고의 재계 실력자에 속한다. 그리고 개인사업 등으로 사업에 성공한 고려인 기업인들은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Бугай Николай 2014; Ким Г.Н., Хан В.В., Хан В.С., Чен В.С., 2014 참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들은 절대 대다수가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민족이다.⁶⁾ 태어난 국가와 관련된 사전적 의미의 모국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바로 자신들의 거주 국가이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까지 러시아화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혈연적 의미에서의 러시아인들도 아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정체성 혼란과 뿌리 찾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오래 전부터 고려인들은 이민족과의 혼인을 통하여 소위 국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다민족 국가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원로세대나 청년세대나 관계없이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 조국’ 즉 한국 혹은 북한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가능하면 생애동안에 직접 방문하고자 열망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방문은 이들의 소원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하며, 바로 이 점이 한국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기도 하다.

심지어 이미 타민족과의 혼인을 통한 국제가정의 경우 그리고 그 자녀들은 이미 순수한 의미의 한민족의 개념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한민족임을 인식하고 있다.⁷⁾ 카자흐 남자와 결혼한 고려인 여자의 가정이 만든 자녀들의 경우 그들의 민족적 특징은 어떠한가? ‘역사적 조국’에 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오랫동안 시행해오고 있는 방문초청 사업은 최소한 고려인들에게는 축복의 대상이다. 그것도 자비 부담 없이 한국 방문을 해 본다는 것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행운이요, 삶의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발생하는 계기로도 작용한다. 점차 재외동포재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기관에서 고려인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수혜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방문초청 사업은 그래서 최소한 고려인들에게는 확대,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결국 150년 이상의 이주 역사를 가진 구소련 지역 고려인들은 이미 하나의 또 다른 종족(ethnos)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역사적 조국’에 대한 방문,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 인식과 확립, 뿌리 찾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동포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나친 한국어 교육의 ‘강요’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준

6) 구소련 고려인은 이미 한국인도 북한인 그리고 조선족이나 재미한인도 아닌 글자 그대로 고려인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제1언어의 차이에서 비롯한 현상이다. 따라서 한국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일방적 태도는 고려인들에게 늘 긴장감만 줄 뿐이다. 고려인과 관련하여 민족과 초민족 개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심현용·한 발레리 2013, 14-22)

7) 이러한 상황은 벨라루시 고려인과 에스토니아 고려인 국제 가정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고려인들이 적게 거주하고 있는 유럽 지역 러시아나, 발트 삼국, 카프카즈 삼국 등지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들의 자녀는 일단 언어적으로는 한국어가 차단되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항상 한민족적 정서를 잃지 않고 있다.

높은 한국어가 필요한 고려인들은 이미 스스로 알아서 잘 해나가고 있기도 하다.⁸⁾

3. 하나에서 분산된 고려인: 소련 고려인에서 각국의 고려인으로. 정체성의 혼란

소련 체제 하에서도 복잡했던 고려인 개념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더욱 더 복잡하게 되었다. 이미 많은 고려인 연구자들도 지적했다시피 고려인들은 새로운 이산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해당 민족주의 경향의 정책에도 문제를 안게 된 것이다. 가령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경우 소련의 각 지에 분산되어 거주하던 가족, 이웃들과 국가를 달리하는 자연스러운 외국인 관계로 바뀌게 되고, 카자흐어 사용의 확대와 함께 언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도 러시아인이 전 국민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비즈니스계에 러시아어가 많이 사용되는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이나 타 국가에 비해 조금은 나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벨라루시의 경우도 러시아어의 공용화 정책으로 나은 형편에 속한다. 그러나 모국어로서 러시아어가 선택된 고려인들 특히 시니어급의 고려인들은 현지 거주국 언어의 습득이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언어와 관련하여 어떤 길로 갈 것이며 러시아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었는데, 타지키스탄의 사례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소련 시기만 하더라도 약 13,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했다고 알려진 타지키스탄의 경우 독립 초기의 내전(1992-97)으로 인하여 고려인 공동체가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이애리아 1999, 207-226; 이채문 2012, 147-183). 2016년 기준으로 현재 수백 명 수준의 고려인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고려인 사회는 대폭 축소되어 있다.⁹⁾

2013년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타지키스탄 거주 고려인에 대하여 ‘러시아인 동포(Российски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로 지칭하면서 고려인들을 끌어안았다. 타지키스탄 고려인 협회 또한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고려인협회(Ассоциац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джикистана)’로 명명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동 협회 김 빅토르(김 빅토르) 회장은 재 타지키스탄 러시아동포 조정협의회 회장까지 맡고 있다(김 G.H. 2014,

8) 이미 미국화한 재미동포 1세대들에게 한국어 구사를 요구하고는 있는가? 고려인의 한국어 문제는 본 논문의 핵심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확실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한국어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한국어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유학이나 취업 등 다른 사회활동과 연관되어 수준 높은 한국어를 요구하는 일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 수준의 의사소통만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9) 전체 구소련 지역 고려인사회의 인구 비율 면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이 바로 타지키스탄이다. 소련 시기에 비해 전체적으로 5%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그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87, 90).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이 과연 러시아인 동포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타지키스탄 고려인들 중 국제 가정 즉 러시아인과의 혼인으로 가정을 만들었을 경우 민족적으로도 반은 러시아인, 반은 한민족이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러시아의 정책은 무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절반 또한 한민족이므로 당연히 우리의 동포이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끊어질 수가 없다.

발트 삼국이나 카프카즈 삼국 그리고 심지어 벨라루시의 고려인 사회는 민족정체성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심각한 곳이다. 에스토니아 경우 에스토니아어 구사력이 없으면 국적조차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1990년대 초반에는 극히 적은 숫자지만 국적 없는 고려인도 발생했다. 그리고 동포사회의 규모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현지 국가에서 거주하기란 동화 없이는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들의 마음속에는 ‘역사적 조국’과 ‘한민족의 뿌리찾기’가 사라지지 않고 강하게 남아 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민족성 회복차원의 문화적 접근이라는 점을 말할 필요가 없다.

4. 거주국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고려인 사회

이미 소련 시기에 고려인들은 ‘농업전문가’와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민족으로 평판¹⁰⁾이 높았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높은 교육적 관심과 뛰어난 역량으로 학자나 과학자, 법률가, 관료 등 전문가로서 현지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해 왔다. 그래서 공화국 수준의 장관이나 고위 관료, 교수, 의사는 말할 것도 없고 과학기술자와 법률가 등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심지어 정치적 전환기와 현재의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0) 김병화(우즈베키스탄, 북극성 콜호즈), 김만삼(카자흐스탄, 이방가르드 콜호즈), 황만금(우즈베키스탄, 폴리토젤 콜호즈) 등 소련 차원의 명성을 가진 고려인을 생각할 때 사회주의 노동영웅 칭호를 받은 사람이 총 209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1948~51년 사이에 면화농사 혹은 벼농사로 칭호를 받았는데 그 이후 노동영웅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후 한때 ‘고본지’ 경영으로도 변화된 농업구조에서도 잘 적응한 바 있는 고려인들은 공업화, 정보화한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인구구조의 변화로 더 이상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에 힘들다. 고려인들의 도시화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빠르게 진행된 결과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에서 비롯된다.

〈표 1〉 전·현직 국회의원 고려인 명단

성명	국가	직위, 재임기간	비고
텐 유리 (1951 - 2003) Юрий Михайлович Тен	러시아	하원의원 1993-2003	이르쿠츠크 기반
장 류보미르 (1959-) Тян Любомир Индекович	러시아	하원의원 2003-2011	니즈니-노브고로드 기반
김 알렉산드르 (1958 -) Ким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러시아	사하공화국 국회의장	
텐 세르게이 (1976-) Тен Сергей Юрьевич	러시아	하원의원 2011-현	텐 유리 의원의 아들
채 유리 (1948 -) Цхай Юрий Андреевич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2007-2014	대통령 임명
김 게오르기 (1953 -) Ким Георг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카자흐스탄	상원의원 2014- 현	대통령 임명 전 법무장관
김 로만 (1955 -) Ким Роман Ухенович	카자흐스탄	하원의원 2012 - 현 (재선의원)	민족회의에서 선출
박 베라 (1938-) Пак Вера Борисовна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2004 -2009	우즈베키스탄 영웅 칭호(2001)
장 발레리 (1946 -) Тян Валерий Николаевич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2010 - 현	대통령 임명 우즈베크 국영항공사 사장
신 아그레피나 (1958 -) Шин Агрепина Васильевна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원 2015 - 현	타슈켄트 시 대표 상원의원
박 빅토르 (1958 -) Пак Виктор Николаевич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2014 - 현	우즈베크고려문화센터 회장
신 로만 (1948 -) Шин Ром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키르기즈스탄	국회의원 2005 - 2015	키르기즈 100대 부호(2009)

사실 위의 〈표 1〉에서와 같이 고려인들이 해당 국가의 정계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소련 시기부터 축적되어 있던 역량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러시아에는 하원의원의 계보가 텐 유리 의원부터 시작하여 장 류보미르 그리고 현재의 텐 세르게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채 유리 상원에 이어 김 게오르기 상원이 현직으로 일하고 있고, 김 로만 고려인협회 회장은 재선 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박 베라 상원의원에 이어 장 발레리 우즈베크 국영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임명으로 상원이 되었고, 지역 배분에서 신 아그레피나는 타슈켄트 시에 할당된 6인의 상원의원 중 한 명으로 현재 활동 중에 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신 로만 의원이 2015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바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기관 수준의 대표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데 알마티 시의 3선의원이자

사업가인 신 브로니스라브, 우수리스크 시의원으로서 활동 중인 리 블라디미르 등이 있고, 리 류보비 고려극장 극장장이 카자흐스탄 민족회의의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해당국에서 소수민족의 수준으로 있는 고려인의 지위가 결코 낮은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이들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한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다.

그 외 재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 전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이 글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¹¹⁾

5. 현지 한국인의 등장과 한국과의 관계: 새로운 변수

1990년대 초기는 고려인이나 한국인이나 상호 이해가 부족했지만 호기심과 동포애 정신으로 온정적인 분위기로 점철되었던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동 러시아 지방에만 한국교육원이 3군데(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개설되었고, 알마티, 타쉬켄트, 비슈렉, 나중에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나-도누에도 교육원이 개설되면서 현지에서 고려인과 한국인의 만남이 더욱 더 용이하게 되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가들이 모스크바와 극동 그리고 중앙아시아, 심지어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지로 진출하여 한국인과 한국의 모습을 고려인에게 알렸다.

고려인들에게 한국인은 간접적 정보로만 듣던 같은 동포이고 조상들의 땅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부강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구소련 각국의 경제사정을 보면 한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실제로 현지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많이 주는 기업가로 인해 고려인들은 한편으로는 민족적 자부심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위축감마저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어에 능통했던 사할린 한인들이 구소련의 각지로 이주하여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 있던 한국기업체의 통역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대륙의 고려인들은 한국어에 서툴러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녔고, 이는 결국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초창기 이러한 고려인과 한국인 간의 애매한 호혜적 관계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11) 앞서도 언급했듯이 러시아의 김 이고리, 김 보리스, 최 게르만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김 블라디미르 외에도 우수리스크의 김 니콜라이, 텐 알렉산드르, 카자흐스탄의 오가이 에두아르트, 남 올렉, 김 에두아르트, 김 바체슬라프 등의 기업가가 있고 키르기즈스탄에도 사업가 상 보리스씨가 대표적인 재계 인사에 속한다. 이들은 체제 전환과정에서 신속하게 적응해서 성공한 케이스에 속하는 비즈니스맨들이다. 카자흐스탄의 재계인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Ким Герман. 2014. “Корей цы в экономике Казахстана за 75 лет(카자흐스탄 경제분야 고려인 75년),” КОРЕ САРАМ(고려사람), с. 138-151.

초기와 같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서로의 실체에 대해 조금씩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진출 한국인 기업인은 단지 동포라고 해서 특별히 고려인 직원을 존중해주지 않았고, 정신적으로 이미 러시아화한 고려인 직원들은 한국적 기업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주장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대보다는 실망과 현실을 직면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¹²⁾ 이러한 경향은 국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한국기업들의 진출이 많았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지의 고려인 사회에서 많이 발견된다. 더구나 정치력까지 신장된 고려인 사회에서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제는 자신들의 의사를 강력히 표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2013년 16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해외자문 의원의 구성에서 나타난 사태였다(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재러한인, 2016/4, 3). 러시아의 모스크바 지부 대표는 종전에 고려인 동포가 많아 왔었는데 2013년에는 한국인을 임명함으로써 고려인 민주평통 의원 전원이 집단적으로 사퇴한 것이었는데 2016년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이하 오오까) 조 바실리 회장은 사퇴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2년 푸틴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기구로서 ‘민족관계 자문회의(Совет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и по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м отношениям)’를 설립하고 그 구성원 중에 고려인 조 바실리 ООК 회장을 임명한 바 있다(Ким Г.Н. 2014, 86) 이는 러시아 내의 고려인 사회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조직이 갖추어진 ООК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소련 시기 국가 최고회의 의원을 역임한 바 있고, 일찍이 고려인 사회의 조직화에 관심이 있었던 조 바실리 회장은 모스크바 고려인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두드러진 인물에 속한다.

조 바실리 회장은 2011년 당시 푸틴 총리에게 고려인은 러시아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러시아 국민으로서 상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Ким Г.Н. 2014, 86). 이는 러시아 고려인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조 바실리 회장 개인으로서는 대통령이 주관하는 민족관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러시아 고려인의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소련 해체 직후의 혼란스러웠던 러시아 고려인 사회가 이제는 국가적으로 관심을 받는 안정된 사회로 상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속선상에서 2013년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반발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12) 물론 고려인들의 희소 지역 즉 시베리아나 유럽 러시아 지방 등 한국인들이 거의 진출하지 않았던 곳은 여전히 한국문화와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두는 고려인들이 있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추정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 고려인의 상황이 과거 한국만 의식하고 기대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점이다. 정치적 성격을 지닌 한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통 자문회의의 해외자문위원에 고려인 대표들이 굳이 들러리 형식으로 구성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만큼 이제 고려인들도 자신들의 견해와 입장을 한국에 대해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

Ⅲ. 고려인 사회의 권역별 고찰

전반적인 차원에서 고려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것이 Ⅱ장이었다면 이제는 지역적으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고려인 사회를 특징화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구역부분은 필자의 자의적인 구분이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구소련 지역은 지리적 범위뿐만 아니라, 국가별 속성, 고려인 형성과 관련된 역사적 특징 등 몇 가지 변수를 가지고 권역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가령 러시아인만 하더라도 극동 지역이나 사할린 그리고 모스크바 등 유럽 러시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아래와 같이 권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 1) 극동 러시아: 사할린, 연해주 등 러시아연방의 극동관구 행정구역
- 2) 시베리아를 포함한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 3) 중앙아시아
- 4) 희소국가군: 발트 삼국, 카프카즈 삼국, 몰도바

1. 극동 러시아권

한인이주사의 시발점이 되는 지역인 이 권역은 모든 고려인들의 역사적 기원이 되기도 한다. 조선 시대 후기에 생존과 거주를 목적으로 고국을 떠난 이들은 항일 독립운동에도 관여했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19세기 말에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제정러시아의 중앙 지역에 진출하여 유라시아 개척의 선구자가 되었다. 이들은 1937년 치타 주의 모고차 이동(以東)의 극동 소련 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강제이주 명령으로 시대적 희생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이때 러일전쟁 후 나뉘어졌던 북사할린 거주 고려인들도 전원 소개되어 이른바 소련의 극동 지역에는 고려인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과 사할린 지역의 행정 담당을 위해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 및 기타 지역에서 차출되어 점차적으로 극동 지역에 출현하기 시작했지만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이지만 일반 국민의 보편적 이주 차원은 아니었다. 한편 사할린의 경우 일제시대에 징용된 사람들의 잔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대륙의 고려인과 역사적 귀를 완전히 달리하는 경우였다.¹³⁾

극동 지역으로 고려인의 이주가 재허용된 시기는 흐루시초프의 등장으로 1956년부터 시행된 조치에서 비롯한다. 소련 각지의 고려인들은 그때부터 직장이 허용되는 한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들이 러시아 남부나 유럽 러시아 지방 그리고 선조들의 땅이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1989년 소련의 마지막 인구조사에 의하면 극동 지역인 연해주에 8,454명, 하바롭스크주에 8,301명, 사할린에 35,191명 등 3개 주에만 54,823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당시 전체 소련 러시아공화국 고려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¹⁴⁾ 소련 해체 후 극동 러시아 지방의 한민족 구성은 한국사람, 북한사람, 조선족 등이 합류하여 매우 복잡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손영훈 외 2013b, 17).

- 1) 1950-6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귀환한 고려인
- 2) 1960-80년대 사할린에서 연해주, 하바롭스크 등 대륙으로 이주한 사할린 한인 및 사할린 잔류 한인
- 3) 1940년대 말에서 50년대에 걸쳐 북한에서 유입된 노무계약자로서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한 북한 사람들
- 4) 1980년대 후반 특히 소련 해체이후인 1990년대에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고려인
- 5) 극동 러시아 지방으로 진출한 한국사람들, 상업활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한 중국 조선족 및 외화획득 단기체류 북한 노동자들

한 마디로 말해서 매우 복잡한 한민족의 구성체를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극동 러시아 지역인데 더욱 더 예민한 요소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의 지리적 근접 지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산 지방 등은 바로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현지 거주 러시아인들은 고려인들의 출몰과 한국인들의 방문에 극도의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영토적 자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역사적 기반이 있는 곳이 바로 현지

13) 사할린 한인들이 지금도 고려인, 고려사람의 용어를 자신들에게 수용할 수 없는 역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14) 소련 공식 인구조사. <http://demoscope.ru/weekly/ssp/census.php?cy=6> (검색일: 2016. 5. 11.)

지역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다.¹⁵⁾

극동 러시아권은 현재 대륙과 사할린 지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에는 매우 복잡한 요소가 크게 작동하는 반면, 후자에는 비교적 그러한 복잡성이 덜하다. 후자의 경우 사할린 한인 1세의 한국 영주귀국 문제와 그로 인한 새로운 이산가족 문제의 발생, 그리고 신세대들의 한국어 구사능력 저하 등이 큰 이슈로 남아 있다.

대륙의 경우 크게 소련해체 시기를 기점으로 기 정착자와 후기 이주자의 화합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된다. 사할린에서 이미 이주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소련해체 전에 정착하여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생활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 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들의 국적은 소련에서 그대로 러시아 국적으로 이전되었고, 생활 기반 또한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에 대륙에서 극동으로 이주한 신이주자들인데 이들 가운데는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성공한 고려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고려인들도 등장하게 된다. 현재 우수리스크의 유지에 속하는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1992년에 카자흐스탄에서 우수리스크로 이주하여 사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신이주 고려인이다.¹⁶⁾ 성공한 신이주 고려인은 고향의 친지와 이웃을 초청하여 이 지역 고려인 인구를 증가시키기도 했다. 운동선수였던 우수리스크 시의원 리 블라디미르는 김 니콜라이의 초청으로 우수리스크로 이주하여 역시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

신이주 고려인 중에는 뚜렷한 사업 능력없이 막연히 농사활동에만 의존하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근의 중국 농업경쟁력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극동 지역의 고려인들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1993년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새로운 국적취득 문제를 발생시켰다. 1993년 이전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적이 부여되었지만 이후는 자동적인 국적 전환이 불가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적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비용 등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아 한때 극동 신이주 고려인의 과제로 등장하기도 했다.¹⁷⁾

15) 러시아 극동 지역을 개척했던 카자크인들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이후 1937년 고려인들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의 다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지했다. 따라서 그들에게도 극동 지방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작용한다.

16) 김 니콜라이 페트로비치는 지난 날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고려인을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려인만을 두드러지게 지원하는 것보다 현지 민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를 희망했다(임영상 외 2005, 199-201).

17) 우수리스크 〈고려신문〉 편집인 김 발레리아는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국적취득 문제는 러시아 및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는 아무런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13년 8월 13일자 필자와의 인터뷰(손영훈 외 2013b, 149).

이 지역의 고려인 문제는 대륙의 고려인들과 사할린 출신 한인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볼 때 사할린 한인들이 가지는 대륙 고려인들에 대한 인식은 말하자면 ‘큰땅배기’ 사람들로서 1945년 직후 사할린 한인들에 대하여 지도적 입장에서 위세를 부렸던 사람들로 요약된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고 특히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증진 과정에서 사할린 한인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고려인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결과 비즈니스 방면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본 적이 있다. 양자 간의 표면적 갈등은 없지만 역사적 형성과정의 차이로 인하여 엄연히 다른 존재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사할린 한인들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극동 및 시베리아 한인조직 연합회(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 и ДВ и Сибири)’를 이끌고 있는 백규성 회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할린 출신이고 한국말도 유창하다.¹⁸⁾

사할린 한인의 경우 사할린 전체 인구 중 러시아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사할린 내에서 중요한 민족에 속한다. 사할린에는 본래 러일전쟁 패배하기 직전에 소수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후 분단으로 북쪽에만 거주하다가 1937년 강제이주 명령으로 사할린 북부에는 존재자체가 사라지고 말았다.¹⁹⁾ 물론 일본 영토에 속한 남부에는 일제의 강제징용 정책으로 새로운 한인들이 공급되고 있었고, 이들이 나중에 사할린 한인의 다수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사할린 한인사회는 한인연합회, 이산가족협회, 경제연합회, 정의복권재단, 이중징용광부 유가족회, 노인회 등 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직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현안이던 사할린 한인 1세대의 고국 영주귀국 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미 4천여 명의 한인들이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다.²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산 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할린 한인들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약 4만 명 수준에서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에서는 24,993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소련 시기이던 1989년의 통계 수치와 비교해서 약 1만 명 정도 감소한 것이다.²¹⁾

18) 러시아의 고려인(한인) 조직은 대개 대륙 고려인들이 주도한 고려인협회와 사할린 한인들이 주도한 민족문화자치회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2000년대 이후 조직의 통합이 실현되면서 2004년 하바롭스크에는 동 연합회가 결성되어 하바롭스크주의 한민족을 대표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손영훈 외 2013b, 28-29).

19) 1937년 10월 18일 보고에 의하면 북사할린 거주 한인 1,196명이 강제이주 당했다(황영삼 2009, 72).

20) 관련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의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총 4천여 명의 영주귀국 신청자 중 재귀국자와 사망자를 제외하고 2016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한국에 남아 거주하고 있는 분은 3천 여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극동 러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는 특징은 바로 약 3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이주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소련 시기에 북한 노동자 중에서 해당 지역에 잔류한 북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은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들 중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교수들도 있는데 이들이 모두 친북한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인 경우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손영훈 외 2013b, 60). 그러나 북한 국적을 지니고 벌목 등 이주노동자도 활동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항상 민감한 존재임에 분명하다.

동 지역이 우리에게 갖는 중요성으로서 한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적 연고성 그리고 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한국인들의 진출로 인하여 고려인들과 한인들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때 한국의 봉제기업이 진출하여 고려인들이 그곳의 근로자로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기업들이 거의 다 철수한 상태에 있다. 그 외 소수 한국의 기업이 활동하면서 사할린 한인을 포함한 고려인들을 고용하기도 했지만,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민족적 차원에서 동질성을 상호 인식하고 호의적 태도를 보였다고보다는 오해와 불신의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인들은 한국인에 대해 더 많은 기대를, 한국 기업인은 고려인보다 러시아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결국 양자 간의 갈등이 나타났다(임영상 외 2005, 193-224).

극동 러시아 지방에서 대륙의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 그리고 한국인과의 관계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리고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면 한국에서 매우 많은 공을 들여야 할 지역으로 생각한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극동관구 중 사하공화국을 제외한²²⁾ 한민족의 인구규모는 러시아 국적자 고려인/한인이 55,552명이며 그중 사할린 주에 24,993명, 연해주 18,824명, 하바롭스크 주 8,015명 등 3개 주가 전체의 9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러시아연방 전체 고려인(한인)의 약 1/3에 해당한다.²³⁾ 여기에 북한노동자 추산 약 3만명, 한국인 약 1천명, 현재 아주 미미한 정도의 조선족 모두를 포함한 한민족(한인동포) 규모는 8만 여명이 된다. 이를 토대로 여기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고려인(사할린 한인) 규모는 약 6만 명, 그 중 연해주 지역의 고려인(사할린 한인) 규모는 약 2만 명이라고 해야 함을

21) 러시아연방 2010년 인구조사. 결국 소련이 해체되면서 사할린에 거주하던 사할린 한인 중 1만 명 정도가 거주지를 옮겼는데 절반은 한국으로 영주귀국하고, 절반 정도는 연해주, 하바롭스크 주 및 대륙 곳곳으로 이주했다고 볼 수 있다.

22)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의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이며, 이때 러시아의 극동관구에 소속된 사하 공화국은 이르쿠츠크 관할로 되어 있다. 러시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통계를 낼 때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이다.

23) 러시아연방 2010년 인구조사.

강조하고 싶다.

2. 시베리아를 포함한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이 권역은 특징은 19세 말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한 고려인들이 존재했었다는 점과 1937년 강제이주의 직접적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소련 시기 전반을 통하여 강제이주자의 후손, 즉 중앙아시아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사할린에서 이주한 한인들도 동 지역의 중심이 된다. 극동 지역권과 같이 구성원들의 특징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1) 1937년 강제이주 이전 이미 해당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있었던 고려인
- 2) 1950년대 중반 이후 자발적 의사로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이주한 고려인
- 3) 1990년대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및 사할린 등지에서 이주한 고려인 및 사할린 한인
- 4)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해당국과의 교류로 진출한 한국인

이 부류에는 북한 출신이면서 소련 시기에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귀화한 사람들도 소수 있는데, 이는 1950년대 중반 이후 발생했던 북한과 소련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이었다. 모스크바 주재 북한 유학생 중 망명자들도 있었고 북한 내의 정치적 숙청 시기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도 있었다. 물론 이들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지만 도외시킬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우선 강제이주 전의 이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의 상황을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897년에 있었던 제정러시아의 전국 인구조사에서 유럽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모두 9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는데, 유럽러시아의 경우 수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사마라 주에 남녀 각각 1명씩 총 2명의 고려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황영삼 2010, 25). 이후 이 지역에도 고려인들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소련 정권 최초의 인구조사인 1926년 통계에서는 러시아공화국 내의 유럽지역에만 총 926명, 우크라이나에 104명, 백러시아(벨라루시)에 2명 등 총 1,032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황영삼 2010, 31-36). 대개 1922년 경이 되면 소련의 각 지방 행정구역에 고려인들이 소수나마 거의 다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937년 강제이주가 실행되기 전 고려인들은 소련 전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대다수는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럽 러시아 지역에는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도시 사무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많았는데 그것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비율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유럽 러시아의 경우 총 926명 중 도시에는 805명(87%), 농촌에는 121명(13%)이 거주했고, 대다수는 모스크바(399명)와 레닌그라드(104명)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황영삼 2010, 31-32). 그리고 우랄과 북카프카즈 지역에도 이미 252명의 고려인이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70% 수준인 177명)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최소한 1937년의 강제이주를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강제이주에 관한 소식도 접하지 못했다. 단지 강제이주 시기에 즈음하여 고려인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감행되었을 때 모스크바에 거주하던 고려인들 중 일부는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어 숙청되었다(황영삼 2010, 40-41).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소련의 고려인들에게 일종의 '적성 민족'의 굴레가 벗겨지고 거주이전 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직장이 보장되는 곳이라면 이주가 자유롭게 되었다.²⁴⁾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 학생들이 모스크바로 유학을 떠나는 경향도 높아졌다. 무엇보다도 로스토프나-도누 지역과 북카프카즈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 지역은 고려인들의 새로운 이주지로 부각되었다. 이때 러시아 남부지역에 고려인들의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의 직업은 대개 사무직, 전문직과 농업종사자들도 이루어져 있었고 안정적 수준의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할린 지역의 한인들의 이주 범위는 대개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이때 사할린에서 이르쿠츠크로 이주한 사람들이 후에 고려인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출신 엘리트 중 모스크바 유학을 마치고 이르쿠츠크로 부임해서 학계 원로로 성장한 분들도 존재한다.²⁵⁾ 중앙아시아에서 유럽 러시아 지방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로 그리고 극동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했고, 사할린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대륙으로의 이주가 가능한 시기였다. 일부 중앙아시아 고려인 중에는 과거 고향땅이던 소련의 극동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지만 강제이주 이전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과거 정착지는 폐허화했고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 등의 유럽계 민족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1990년대에는 다시 러시아 남부 지역과 불가강 유역 및 우랄 지역에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들이 계절농 형태로 이주하는 경향이 등장했다. 볼고그라드와 로스토프를 비롯하여

24) 정치적 탄압을 받은 고려인에 대한 사면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던 시기가 흐루시초프 집권기였다. 그러나 완전한 복권 조치는 1993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

25) 박 보리스 (Пак Борис Дмитриевич: 1930-2010) 교수의 경우 극동에서 출생하여 1937년에 강제이주를 겪고 모스크바에서 유학생생활을 한 후, 이르쿠츠크에서 1999년까지 활동했던 대표적인 우즈벡 고려인이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르쿠츠크에 부임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 황영삼(2008, 3-50).

오렌부르크, 사라토프, 사마라 등이 대표적으로 농사 활동과 관련하여 고려인의 유입이 증가했던 곳이다(임영상 외 2005, 119-149). 사할린 출신 한인들도 지역적 제한없이 러시아 전역으로 이주가 가능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에 능력있는 사람들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구도에서 대륙의 고려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2010년 러시아의 인구조사 결과 이들 권역에 분포하고 있는 고려인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 러시아연방의 러시아국적 고려인/한인

관구	인구수	관구	인구수(명)
북서관구	7,000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4,031명)	불가관구	12,215
중앙관구	21,779 (모스크바시에만 9,783명)	우랄관구	3,805
남부관구	27,640	시베리아관구 + 극동관구의 사하공화국(1,421명)	12,614
북카프카즈관구	12,551	총계	97,604

출처: 2010년 러시아 공식인구조사에서 정리. 97,604명은 극동 러시아 지역(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할)의 55,552명과 합하면 총 153,156명으로 된다.

위 도표에서 볼 때 수도인 모스크바 거주 고려인이 1만 명 정도로 확대되었고, 이른바 남부 러시아 지방인 남부관구와 북카프카즈관구를 합하면 4만 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크림 공화국 지역의 약 3천 명의 고려인이 러시아 고려인 사회로 포함되어야 하기에 대략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다면 약 16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고 본다.²⁶⁾

고려인들의 인구가 비교적 적은 광활한 시베리아 지방의 주요 도시는 동쪽에서부터 울란우데(부랴트 공화국),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톰스크, 노보시비리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르쿠츠크와 크라스노야르스크를 제외한다면

26) 후자는 무국적 고려인을 포함하여 러시아 고려인 인구를 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는 있지만 이는 통계적 근거가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실제 현지조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제 가정의 경우 민족의 선택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과정에서 혼혈 고려인이 고려인보다 러시아인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공식 인구조사 결과보다 조금 많은 고려인 동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확대 추정하는 일은 금물이다. 고려인협회에서 추정하는 고려인 규모에 관한 어림잡은 수치 또한 지나치게 과신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타 도시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각 고려인협회와 연동하여 소규모 문화센터의 설립을 유도하여 한국문화의 부흥을 꾀할 필요가 있다.²⁷⁾ 이르쿠츠크 총영사관의 설립이 고려인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역은 이미 1920년대부터 고려인들의 활동무대였다. 이곳에는 이미 고려인 조직들이 있었고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규모로 고려인의 인구유입이 있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귀환한 고려인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리코프의 사례에서 발견된다.²⁸⁾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련 해체를 즈음한 시기에 남부 지역에 주로 고본지 농사로 경제활동을 하던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출신의 일시적 이주고려인들의 국적 문제가 심각하게 된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무국적 고려인 문제’로 한때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2001년에 전국적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밝혀진 전체 고려인 수는 12,711명²⁹⁾이었는데, 이는 소련 시기인 1989년 조사의 8,669명에 비하여 4,042명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2001년 인구조사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에만 2,877명의 고려인이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⁰⁾

현재 우크라이나 고려인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크림 공화국 지역이 러시아로 편입되면서 생긴 소속 국가의 변동과 지금도 진행 중인 돈바스 지역의 내전 상태로 인한 혼란이다. 크림 지역에는 장코이를 비롯한 농업을 우선으로 하는 고려인 거주지역이 있고 이들 고려인은 모두 우크라이나 국민이었지만 현재는 당연히 러시아 국가의 국민으로 전환되었다. 러시아어에 익숙한 고려인으로서의 러시아 국민이 되는 문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심리적 동요는 무시할 수가 없다. 앞의 통계를 근거로 이후의 변동 상황을 감안하여 약 3천명의 크림 지역 고려인이 모두 러시아 고려인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그만큼 우크라이나 고려인 규모의 축소로 이어진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는 대략 1만 명 이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벨라루시 즉 백러시아 공화국에서도 고려인들이 1934년에 최초로 출현한 후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50-60년대에 걸쳐 종전보다 많은 수의 고려인 유입이 이루어졌다(Te H C.И. 1997, 64-65). 당시 고려인 대부분은 군인과 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27) 시베리아 지역의 고려인에 관한 연구는 임영상 외(2005) 참고.

28) 하리코프의 경우 ‘한국의 집’과 ‘정수리 학교’가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문제로 유명하다(아나톨리 마카고노프 저, 김석원 역, 2003).

29) 출처: http://2001.ukrcensus.gov.ua/rus/results/nationality_population/nationality_popul1/elect_51/?botton=cens_db&box=5.1W&k_t=00&p=50&rz=1_1&rz_b=2_1%20 &n_page=3. 이들 고려인 중 9,662명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선택했다. 다음 전국적 인구조사는 2020년에 실시 예정이다.

30) 위와 동일한 통계근거.

2004년을 기준으로 벨라루시에는 대략 1,2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혼혈가정이고 순수 고려인 가정은 대략 30세대이며 수도인 민스크에는 약 300명 정도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임영상 외 2005, 15).

이와 같이 소수이지만 벨라루시의 고려인들은 우선 다민족 국가에서 소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한국어 구사력은 매우 떨어지지만 ‘역사적 조국’에 대한 관심만큼은 잃지 않고 있다. 벨라루시 고려인 사회는 199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의 진출로 한국과 벨라루시와의 관계가 증진되자 한국어에 능통한 사할린 출신 한인들의 활약이 매우 컸다.³¹⁾ 현재 벨라루시 고려인들은 대부분 기업활동과 전문직종에 종사하며 도시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어 구사능력이 거의 떨어지고 주변 여건상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민족의 순수 혈통이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 고려인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이미 앞서 지적한 대로 19세기 말 제정러시아 시대였다. 이후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이주가 행해졌고 소련 시기인 1926년의 인구조사에서는 모두 81명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당시의 행정구역은 현대적 모습과 다르지만 대개 현대적 기준으로 카자흐스탄 지역에 42명, 키르기스스탄 지역에 9명,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30명 등 모두 81명이었고, 그 중 72명이 남자, 9명이 여자였다. 도시 거주인구는 50명, 농촌 거주인구는 31명 등으로 분석되었다(황영삼 2010, 37).

강제이주 전인 1928년에는 극동 지역의 거주 고려인들 중 벼농사에 소질이 있는 70가구 300명의 고려인들이 카자흐공화국의 카라탈 지역으로 초청되었다. 당시 스탈린의 농업집단화 정책과 함께 농업구조의 변화는 소련의 경제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었다. 극동에서 이미 벼농사로 인정받던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벼농사 개발에 전격적으로 투입되었던 것이다.³²⁾ 따라서 1937년 강제이주 전에 이미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대략 수백 명 규모이지만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따라서 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는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³³⁾

31) 이기미 벨라루시 고려인협회 회장이 대표적이며,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어 강사와 함께 이들은 벨라루시 고려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2) 이들 중 일부는 1933년에 로스토프-나-도누 지역으로 건너가 또 다른 벼농사 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황영삼 2010, 39).

33) 120년 정도로 보면 무난할 것이다.

1937년에 스탈린의 결정으로 소련 극동주³⁴⁾ 거주 고려인 약 172,000명이 당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중앙아시아 각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되었다.³⁵⁾ 여기서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극동에서 카자흐 공화국과 우즈베크 공화국으로만 이주되었던 것이 아니라, 키르기즈 공화국과 타지 공화국에도 1937년 기준으로 고려인들이 일부 이주되었다는 점이다. 단 투르크멘 공화국에는 그 이후에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에서 활동하던 고려인들이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황영삼 2014, 154-197). 그리고 강제이주가 단행되기 직전에 극동에 있던 고려인 지도자들이 불시에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그 인원은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모스크바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학자가 그 실상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³⁶⁾

1937년의 강제이주는 고려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조국 상실의 비극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던 한민족 동포 전체의 비극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고려인에 대한 탄압이 필수적이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없던 고려인들은 많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소련 정권의 탄생에 협조적이었고 절실한 공산주의자로 자처했던 수많은 고려인 엘리트들이 이때 대대적으로 숙청되면서 소련 고려인 사회의 대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결과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필사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와 인식의 재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소련 시기의 고려인 명성은 중앙아시아의 콜호즈와 소포즈에서 크게 활약한 고려인 농업지도자의 활동 결과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고려인들이 농업전문가로

34) 극동주(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Край)는 1926년 소련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만들어진 영역으로서 대개 강제이주 고려인 대상 지역은 바로 여기에 한정된다. 단순히 극동 지역이라고 칭하는 것은 무방하나 연해주라고 칭하는 것은 오류이니 유의해야 한다. 연해주는 사실 극동주 안에 있는 단위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극동주는 1938년에 이른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연해주(Приморский край)와 하바롭스크 주(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로 분리, 개편된다.

35) “소련 내무인민부 의장인 예조프의 1937년 10월 25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극동주의 고려인 총 36,442가구 171,781명이 이주를 마쳤다고 하면서, 이주 고려인들은 카자흐 공화국으로 20,170가구 95,256명, 우즈베크 공화국으로 16,272가구 76,525명이 총 124편의 열차를 타고 배치되었다. 그리고 극동주의 캄차카 및 오호츠크 지역에 잔존하고 있던 700명의 특별이주 고려인들이 11월 1일부터 열차로 이주될 것이라고 하였다. 11월에는 이주 및 이주민 배치의 상황이 거의 완료되는데, 1937년 12월 5일 문서자료에 의하면, 카자흐 공화국에 20,141가구 95,427명, 우즈베크 공화국에 16,079가구 73,990명, 타지크 공화국에 13가구 89명, 키르기즈 공화국에 215가구 421명 등 총 36,448가구 169,927명의 고려인들이 배치되었다. 카자흐 공화국에 배치된 고려인들 중 500여 가구는 이듬해 초에 러시아 공화국의 아스트라한 지역으로 재이주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인강제이주 항목 참고.]

36) 모스크바에서 활동 중인 구 스베틀라나씨는 강제이주 직전 처형된 고려인 희생자에 관한 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후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다.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오류에 속한다.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소련의 산업구조는 농업에서 공업 위주로 전환되고 도시화 경향도 심화되어 고려인 사회도 이를 반영하듯이 탈농촌 현상이 증대되었다. 198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던 고본지 농업의 결과 양파 판매로 명성을 얻었던 고려인들도 1990년대의 체제 변화와 함께 급속도로 퇴조했던 것이다.³⁷⁾ 그래서 1940-50년대 소련 농업의 전성기때 보유하던 농업기술을 가진 고려인들의 명맥이 거의 유지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고려인은 더 이상 농업전문가가 아니므로 농업과 관련하여 고려인과 연결하는 사업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국인 농업전문가가 고려인들에게 오히려 농업기술을 전파해야 할 상황으로 변했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이른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극동 러시아 지방으로 이주해가는 이른바 신이주 고려인에 관한 인식이다. 한국에 소개된 이들 고려인은 대부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이주된 곳에서도 안정된 직장생활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소개되었는데 이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본질이 아니다.³⁸⁾ 극히 일부에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양 오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앞서서 지적한 대로 중앙아시아에서 극동 지역으로 이주해 갔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고려인들도 다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바로 그들이 현재 지역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의 상황은 국가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가장 안정적이고 고려인 규모의 변화가 작은 국가가 바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이다. 1989년, 1999년, 2009년의 인구조사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규모는 대략 10만 명 정도로서 일정하다(103,314명, 99,944명, 100,385명). 이는 그만큼 고려인들의 생활이 카자흐스탄에서 비교적 안정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 현지에 가서 확인해도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가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이지만 대체적으로 석유자원의 힘으로 카자흐스탄 전체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그곳의 고려인 또한 안정적 지위에 놓여 있다. ‘강제이주’에 관한 논의에서 벗어나 ‘정주’의 개념을 강조한 고려인들이 바로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라는 것을 볼 때, 더 이상 이들 고려인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³⁹⁾

37) 이 결과 경제적 위기에 빠진 고려인 공동체가 국내에 소개되어 고려인에 관한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게 되었다.

38)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된 기사와 다큐멘터리.

39) 따라서 최근의 조사와 연구에서 카자흐스탄에 전향적으로 한국과학기술대학 설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손영훈 외 2013a).

〈표 3〉 지역별 고려인 분포(2009 인구조사)

지역(주)	인구수	지역(주)	인구수(명)
아크몰린스크	1,375	악추빈스크	1,475
알마티	16,627	아티라우	2,959
서카자흐스탄	843	잠빌	9,964
카라간다	13,354	코스타나이	3,847
크질오르다	8,190	망기스타우	733
남카자흐스탄	9,254	파블로다르	1,029
북카자흐스탄	462	동카자흐스탄	1,491
알마티 시	24,610	아스타나 (수도)	4,172
총 계	100,385		

출처: 카자흐스탄 공식인구조사 자료: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09ГО ДА, Краткие итоги, Астана 2010, 10쪽.

위 도표에 나와 있듯이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알마티 시와 알마티 주에는 특히 41,23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수 거주 지역은 크질오르다 주, 카라간다 주와 남카자흐스탄 주(침켄트) 및 잠빌 주(타라즈) 등이다. 이곳은 카자흐스탄의 중남부 지방에 해당인데 여기서 지리적으로 더 남쪽으로 가면 타쉬켄트 지역에 다다른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에 관한 규모는 독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인 인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력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문가나 고려인협회의 추정치에 의존해 오고 있다. 다만 1989년 소련 시기의 인구조사에서 183,140명으로 파악되었고 향후 모든 추정치는 여기에 근거해서 추정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재적 시점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소련 시기보다 더 많을 수는 없고 더 적은 규모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약 145,000명에서 175,0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대다수의 고려인들이 타쉬켄트와 타쉬켄트 주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다.⁴⁰⁾

그리고 이곳 고려인들의 생활수준이 열악한 것은 고려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경제력이 인근의 카자흐스탄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⁴¹⁾ 한국에도 이러저러한

40) 김 게르만 교수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되었다. 전문가의 추정치 147,500명(1999년 기준)을 언급했고, 우즈베키스탄 국내이주 차원에서 지방에서 타쉬켄트 지역으로 고려인의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주자했다(김 게르만 저, 황영삼 역 2010, 106-107).

경로로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도 1만여 명에 이른다. 그리고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로 이주해나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을 감안한다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양적 규모면에서 가장 변동이 큰 고려인 공동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⁴²⁾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은 1989년에 18,355명, 1999년에 19,784명, 그리고 최근의 2009년 인구조사에서는 17,299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 경제의 약세와 함께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대폭적인 변화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은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도시 거주 고려인의 비율이 78%, 1999년에는 80%, 2009년에는 81%로 나타난 것을 보면 대부분 사무직이나 상업 및 도시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손영훈 외 2009, 12). 그리고 고려인들은 수도인 비슈켈 주변에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비슈켈 인근 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고려인도 있었지만 현재는 자본금의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⁴³⁾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1989년 13,431명으로서 인근의 키르기스스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소련 해체 직후 전개되었던 내전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 2000년 타지키스탄 인구조사의 결과 타지키스탄 고려인은 모두 1,696명으로 조사되었다(황영삼 2010, 120). 대부분 수도인 두산베와 그리고 우즈베크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후잔드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수치도 2010년 공식 인구조사에서는 634명 수준(1989년 대비 4.7%로 하락)으로 급감된 것으로 바뀌었다.⁴⁴⁾ 타지키스탄 고려인들은 대부분 러시아나 카자흐스탄 등 인근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공동체 중에서 거의 해체 단계로 급변한 지역이 바로 타지키스탄 고려인 공동체인 것이다. 바로 이들 고려인들에 대해 러시아에서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은 1939년 인구조사에서 40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소련 시기에 꾸준히 증가하여 1989년에는 2,848명으로 조사되었고 독립 이후인 1995년 조사에서는 3,159명으로까지 파악된 바 있다(황영삼 2014, 160). 그러나 현재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공동체 또한 거의 1천 명 이하의 소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추정된다.⁴⁵⁾ 사실 2012년에 전국 규모의 인구조사가 실시되기는 했는데 투르크

41) 경제력 저하가 곧 고려인들의 지위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 중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계 엘리트와 경제계 및 문화계 엘리트들이 다수 존재한다.

42)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인구유출국으로, 러시아는 고려인 인구유입국으로 정리될 수 있다.

43) 토크목 고려인협회장 남 안드레이의 경우(손영훈 외 2009, 64-67).

44) 2010년 타지키스탄 공식인구조사 자료.

http://www.stat.tj/ru/img/526b8592e834fcaaccec26a22965ea2b_1355501132.pdf, p. 7.

메니스탄 당국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고려인들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지만 주로 많이 거주하던 그리고 현재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북부의 다쇼구즈 지역이다. 다쇼구즈 지역은 1960년대에 벼재배 콜호즈로 유명한 곳이 흔적으로 남아 있으며 이때 고려인들의 유입이 인근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러나 소련 해체 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나타난 급격한 체제변화와 함께 고려인 사회는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현재는 수도인 아쉬가바트와 다쇼구즈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인협회가 조직되어 있고 미세하나마 한국과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를 일률적으로 표현하기에는 국가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 어려운 요소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언어 문제인데 거주국의 주류 민족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주류 민족의 언어능력이 없으면 상층부의 진입이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이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거주국 언어 학습을 새로이 안고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비즈니스 언어인 영어 학습 또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국어 학습이란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된다.

또한 바뀐 거주국의 정치경제 제도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대로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대로 독특한 경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일률적인 소련 스타일의 경제운용은 더 이상 통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중앙정부 권력이 어느 국가보다 강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는 인근의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판이한 적응력 또한 필요하다.

4. 희소국가군: 발트 삼국, 몰도바, 카프카즈 삼국

이 권역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대개 각 국가에서 최대 200~300 명 수준에 있어서 한민족 정체성 및 고려인 정체성의 유지에도 심대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국내 어디에도 정확한 통계는 부재하며 현지 한국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추정치로 판단할 뿐인데 몇몇 국가는 그마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선 1989년의 소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이들 국가의 고려인은 다음과 같다.

45)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에 대해 대략 1천 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46) 1960년대에 형성된 '제22차 당대회 콜호즈'와 '제23차 당대회 콜호즈'는 당시 지역 사회에서 벼재배로 명성을 얻었다는 사실이 <레닌기치> 신문을 통하여 전해졌다(황영삼 2014, 167-173).

〈표 4〉 희소국가군 고려인 규모(1989년 기준)

국가	인구수	국가	인구수(명)
에스토니아	202	그루지아(조지아)	242
라트비아	248	아르메니아	29
리투아니아	119	아제르바이잔	94
몰도바	269	총계	1,203

출처: 1989년 소련 공식인구조사 결과.

http://demoscope.ru/weekly/ssp/sng_nac_89.php?reg=0 사이트에서 정리.

그리고 독립 후에 실시된 공식인구조사에서 이들 권역의 고려인 규모는 아래와 표와 같이 감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정확한 통계수치를 공개한 발트 삼국의 경우 에스토니아는 202명(1989)에서 159명(2011)으로 21% 감소했고, 라트비아는 248명에서 191명으로 23%, 리투아니아는 119명에서 67명으로 44% 감소했다. 비율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100명 내외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인 공동체의 와해 위기가 다가왔음을 말해준다.

몰도바와 카프카즈 삼국의 경우는 모두 공식인구조사를 실시는 했지만 고려인의 수가 소수에 그쳐 기타 민족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역시 절대적인 규모의 감소는 추정할 수 있어서 고려인 공동체 역시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독립 이후 국가 공식인구조사 결과 나타난 고려인 규모: ()은 최근 실시된 인구조사 통계

국가	인구수	국가	인구수(명)
에스토니아 (2011)	159	그루지아(조지아) 2002	소수(미확인)
라트비아 (2011)	191	아르메니아 (2011)	소수(미확인)
리투아니아 (2011)	67	아제르바이잔 (2009)	소수(미확인)
몰도바* 2011	100여 명*	총계	500~600

출처: 에스토니아: <http://pub.stat.ee/px-web,2001/Dialog/Saveshow.asp>

라트비아: http://data.csb.gov.lv/pxweb/en/tautassk_11/tautassk_11__tsk2011/TSG11-06.px/table/tableViewLayout1/?rxid=c8c8a0dd-6a8e-4e89-add7-718c9998db99

리투아니아: http://statistics.bookdesign.lt/table_044.htm?lang=en

* 몰도바는 2004년과 2014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함. 2004년의 경우 몰도바 통계청 사이트의 접속이 제한되어 확인하기 힘들고 2014년의 경우 현재 분석 중에 있음. 100여명의 수치는 2011년의 비공식 자료임. 그루지아(조지아)의 경우 2002년과 2014년에 인구조사가 실시됨.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고려인 통계가 공식적으로 기타 소수민족군으로 처리되어(양국 통계청 자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나, 1989년의 각각 29명 및 94명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됨.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삼국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일찍이 러시아 영향권에서 떨어지고 당연히 독립국가연합(CIS)의 국가도 아니다. 오히려 유럽연합(EU)의 구성국으로서 이들 발트 삼국은 현재 국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동포 차원에서 접근할 때 이곳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을 이른바 ‘러시아/CIS’ 라는 용어로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일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거주 고려인들의 역사적 생성을 볼 때 당연히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과 함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모국어가 바로 러시아어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공동체 형성의 시기가 바로 소련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트 삼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생활하는 고려인들 중에는 중앙아시아 출신이 있을 수 있고, 러시아 출신이 있을 수 있는 등 그 뿌리가 소련 고려인에 있다는 것이다.

이미 2004년에 진행된 현지조사에서 고려인의 규모가 200명 정도로 추산되었던 에스토니아의 경우 언어적 문제로 심각한 환경에 처한 고려인 공동체가 조사되었다. 에스토니아에서 에스토니아 국적을 취득하려면 에스토니아어 구사 테스트가 필수로 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은 물론이며 고려인들 중에도 에스토니아어 학습에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도 등장하여 국적 없는 상태의 위기도 조성되었다. 어렵게 운영되고는 있지만 에스토니아 고려인협회는 리디아 클바르트의 노력으로 한민족 문화의 증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국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미하일 클바르트(Kolvart) 탈린 부시장(문화·체육·복지 담당)은 부친이 에스토니아인이고 모친이 바로 고려인인 리디아 클바르트이다. 모친이 카자흐스탄에 연수 와 있던 에스토니아인 변호사 월로 클바르트와 결혼하면서 이 가족들은 1980년 에스토니아로 이주했다. 에스토니아로 갔을 당시 클바르트는 세 살이었는데(1977년생), 이주 후 카자흐스탄에 남아있던 동료 고려인들을 100명 넘게 에스토니아로 초청하여 현재 수준의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었다.⁴⁷⁾ 성씨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에스토니아화가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트비아의 경우도 언어문제에 관한 한 에스토니아와 동일하다. 일정한 수준의 라트비아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라트비아 국적을 받을 수 없기에 러시아인들의 반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몰도바 및 그루지아(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지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공동체 또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고, 단지 현지 한인회의 활동에 고려인들이 초청되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만남 정도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한민족 정체성 상실의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다.

47)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02/2014090200053.html. (검색일: 2014.09.02.)

IV. 권역별 특성화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책

-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구소련 지역의 고려인 사회는 긴 역사만큼이나 내부의 구성 요소 및 성격이 국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제시했듯이 권역별로 나누어진 인식과 개념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극동 지역의 경우 매우 다양한 요소의 한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그 중에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진정한 대륙의 '고려인'과 일제시대의 산물인 '사할린 한인'이 소련 국민으로서 중추적 한인 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 출신의 소련 국적자와 1990년대 이후 진출이 가능했던 한국인 및 인근의 조선족 그리고 북한 노동자들까지 혼재해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항상 1937년의 강제이주 사건과 연관이 되며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매우 예민한 곳이다.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사업은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 이상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이제는 그곳 신세대 한인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인공동체와 한국과의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새고려신문'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연해주 지방에는 우수리스크가 고려인 사회의 공동체가 될 것이며 여기에 이미 개관된 고려인 문화센터는 고려인과 한국인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는 공간으로 지속되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단지 재정적 후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콘텐츠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노동자들의 많이 발견되는 하바롭스크 지역 또한 고려인, 사할린 한인,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문화적으로 협력해야 할 공간이다. 극동 지역은 향후 한반도의 통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지역이며 통일논의 과정에서 이곳 고려인들에 대한 기대도 큰 만큼 실질적으로 대폭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 러시아 지방에서 남부 지역은 새로운 고려인 공동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려인의 인구유입이 많이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도 중앙아시아 등지의 고려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하고 있다. 우선 고려인들은 언어적으로 러시아어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 이주의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고려인 인구도 점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사할린 출신 한인들도 활동 중에 있다. 러시아 정계의 유력 인사 또한 고려인 중에서 나오고 있으며, 재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고려인들도 있는 만큼 고려인의 위상이 높이 올라간 곳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최근 정치적 문제로 인한 위기가 발생했고 그 결과 크림 공화국 지역 고려인 약 3천명이 러시아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우크라이나 역시 고려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와 언어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벨라루시의 소수 고려인 공동체에서는 한국어에 능통한 사할린 한인 협회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개 개인 사업과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 소수 고려인 사회는 민족정체성 유지에 필요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문이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는 '강제이주'보다 '정주'의 개념을 가장 먼저 내세울 정도로 이미 안정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가 경제의 위기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도 국회의원이나 재계 실력자들도 등장한 만큼 위상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맞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력 고려인 인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유력 인사를 통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고용을 창출하여 동포 고려인의 고용을 유도함으로써 경제면에서 고려인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 효과가 있다. 전문 학자들에게는 연구지원비가 제공되는 방안도 필요하다. 분야는 파급효과가 큰 과학기술 방면과 한국학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인 과학기술자 중 뛰어난 기술과 특허를 보유한 고급 인력을 탐색하여 국내에 초청하거나 현지 연구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원에게는 교재제작비와 연구활동비 및 한국연수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원로 고려인들에게도 주목하여 생애구술을 유도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 신세대 고려인 청년포럼의 진행에도 소규모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려인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제도는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사회는 우선 고려인들의 규모 등 그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독립 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보기 드문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정책상 인근의 카자흐스탄과 판이한 노선을 걷고 있다. 대개 타쉬켄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대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과의 특수한 친근 관계로 인하여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은 관계로 우즈베크 고려인들의 어려움이 소개되고는 있지만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등 우즈베키스탄에서 차지하는 고려인의 위상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사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비단 고려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키르기즈 고려인이 설립한 문화센터와 신문사 또한 고려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한데 금전적 후원이 아닌 직접적인 물품 전달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려인 공동체가 거의 붕괴된 타지키스탄의 경우 민족정체성 유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공동체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은 향후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로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발트 삼국과 몰도바 그리고 카프카즈 삼국의 고려인 사회는 소멸 위기가 높은 고려인 희소지역이다. 여기에는 개인적 관심으로 진출한 한국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언어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민족의 동질성을 상호 인식하고 있어서 축제의 장에서 상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출 한국인들을 활용하는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김 계르만 저, 황영삼 역. 2010. 해외한인사 1945~2000. 한국학술정보.
- 김호준. 2013.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주류성.
- 손영훈 · 김상철 · 황영삼. 2013a.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 실태조사.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손영훈 · 방일권 · 황영삼. 2013b. 극동러시아 한인사회 실태조사.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손영훈 · 황영삼. 2009. 키르기즈스탄 고려인 실태조사.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 심현용 · 한 발레리. 2013. 중앙아시아의 코리안 에트노스 - 어제와 오늘. 이매진.
- 아나톨리 마카고노프 저, 김석원 역. 2003. 하리코프에서의 행복의 비결. 다해.
- 이 애리아. 1999. 중앙아시아 한인연구: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사회과학연구소총서 5, 207-226.
- 이채문. 2012.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의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16(1), 147-183.
- 임영상 외. 2005. 소련 해체 이후 고려인 사회의 변화와 한민족. 한국외대 출판부.
- 황영삼 글. 2009. 재외동포사 연표: 러시아-중앙아시아. 국사편찬위원회.
- 황영삼. 2010. 초기 고려인공동체 형성연구 - 유럽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43, 23-45.
- 황영삼. 2008. 시베리아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의 구술 생애사 -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생활 시기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0, 3-50.
- 황영삼. 2014. 투르크메니스탄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나타난 특징. 민족연구 57, 154-197.
- Бугай Николай. 2014.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러시아 고려인): перемены, приоритеты, перспектива. Москва.
- Ким Г.Н., Хан В.В., Хан В.С., Чен В.С. 2014. КОРЕ САРАМ(고려사람). Москва.

- Тен С.И. 1997. Корейцы Беларуси: истоки, традиции, современность(벨라루시 고려인: 기원, 전통, 현재). Минск, 64-65.
-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1505>(검색일: 2016.5.15.)
-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재러한인)>, Апрель 2016, с. 3.

● 투고일: 2016. 9.30. ● 심사일: 2016.10.14. ● 게재확정일: 2016.10.31.

Reapprais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ex-Soviet Koreans

Hwang, Youngsarm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ims to reappraise and clarify the structure of the ex-Soviet Korean Communities that has over 150-year history of migration. First of all, I propose the use of 'ex-Soviet Korean' concept, not of 'Russia-CIS Korean' when it comes to the study of Korean migration problems in those areas. The ethnic minorities of Koreans of the Balts and Georgia are not included in the ex-Soviet Koreans in spite of their same roots of migration history and culture.

In case of Far Eastern Russia, there live various Koreans such as continental Koreans(Koryo-Saram, Koryoin), Sakhalin Koreans, ex-Soviet Koreans from North Korea origin, South Koreans who could be migrated from 1990s, Chinese Koreans, and North Koreans who work there as laborers. So the Korean Communities of Far Eastern Russia are very complicated, not so simple.

Southern area of Russia is new alternative Korean communities. This area was, in fact, attracted as new migrative place by Soviet Koreans since the mid-1950s. So quite a few Koreans migrated from the Northern Caucasus, and many Koreans gathered from Central Asia especially since 1990s. These Koreans are assimilated linguistically, so they have no problems of communications with Russians. And Moscow and St. Petersburg are rising as new Korean migrative places since 1990s.

Kazakhstan Korean communities approach to the stabler stage than those of other CIS countries. Kazakh Koreans adopt the concept of 'living' instead of the concept of 'deportation' of 1937 affair. They are proud of Korean ethnic elites like politicians, businessmen, scholars and cultural leaders. As for the Uzbekistan Korean communities, we have to the exact situation of them from the size of ethnic Koreans. The Kyrgyz Korean communities are comparatively stable, but Tajik Korean communities are almost

dispersed because of the affect of the Civil War in early 1990s. The Turkmen Koreans communities are also needed to study at first. The various Korean communities of Balts, Moldova and three trans-Caucasian countries are diminishing gradually because of their size of population. In these area, South Koreans are expected to play some roles in keeping their Korean Identity.

〈Key words〉 Koryo-Saram, Koryoin, Korean deportation, ethnicity, migration, Russia, Central Asia